

# 신채호의 국내외 유적지 조사와 활용 방안

김하돈\*

- 
- I. 들어가는 말
  - II. 신채호의 국내 유적지 개요
  - III. 신채호의 해외 유적지 개요
  - IV. 신채호 유적지 조사의 성과와 과제
  - V 신채호 유적지 조사의 활용방안
  - VI. 신채호 유적지 답사 활용사례
  - VII 나가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단재 신채호가 휘순의 차디찬 감방에서 순국한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더불어 신채호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고자 1996년 청주에서 출범한 단재문화예술제전이 2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다. 단재문화예술제전의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며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채호의 국내외 유적지를 답사하고 조사하여 결과보고서<sup>1)</sup>를 간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

\* 시인, 『단재기행』의 저자,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국내외 신채호 유적지를 총망라한 답사자료 안내서인 『단체 기행』<sup>2)</sup>이 발간되었다. 이로써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단체 신채호의 발자취를 좇으려는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가 일정 정도 완성되었다.

이 글의 집필은 그 동안 신채호의 국내외 유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착수되었다. 신채호의 국내외 유적지에 대하여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조직적인 탐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십여 년이 넘었다. 그 동안 위원회 내외부로 축적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2013년과 2014년 이태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진행되었다.<sup>3)</sup> 이는 신채호의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 사업이 지자체(청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가능했다는 긍정성과 함께, 독립운동가 한 사람의 생애 전반 유적지에 대한 첫 집단 연구 사례라는 매우 뜻 깊은 이정표를 남겼다. 이 글은 가급적 위원회가 추진한 전반적인 조사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그 결과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탐색에 중점을 두고 전개할 것이다.

## II. 신채호의 국내 유적지 개요

1880년 12월 8일, 지금의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단체 신채호는

- 
- 1) 『단체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 기념장소 네트워킹 사업(1차) 결과보고서』, 2013년 12월,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 『단체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 기념장소 네트워킹 사업(2차) 결과보고서』, 2014년 12월,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 2) 김하돈, 2015, 『단체 기행』,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 3) 2013년(1차): 허원(서원대학교수), 박걸순(충북대학교수), 최옥산(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수), 김주현(경북대학교수) 등.  
2014년(2차): 허원(서원대학교수), 박걸순(충북대학교수),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수), 김주현(경북대학교수), 박정규(전 청주대학교수), 김하돈(작가) 등.

1910년 6월 초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대략 29년 6개월을 국내에서 살았다. 1936년 2월 21일, 중국 뤼순형무소에서 만 55년 3개월이 채 안 되는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가 조국 땅을 다시 밟은 것은 1917년 평안남도 진남포에 밀입국하였다가 서울을 한차례 다녀간 것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생애 후반의 25년 9개월을 해외 망명지에서 보낸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신채호의 국내 유적지는 크게 나누어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서울특별시 등 4곳이다. 그밖에도 1910년 망명 당시 일주일쯤 머물렀던 전주 오산학교나, 앞서 언급했던 1917년 밀입국 당시 다녀갔던 진남포 등지가 있지만 이는 북녘 땅이므로 지금은 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는 신채호 생가가 있다. 1880년 신채호가 태어난 생가의 현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단재로 229번길 47”이다. 이전의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233번지” 혹은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 익동 도리리”이고, 더욱 옛 지명은 “충청도 회덕현 산내면”이다.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는 1991년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 26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1992년 여름, 생가 터를 발굴 조사하여 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현재 생가에는 입구에 사무소 용도로 보이는 단재헌(丹齋軒)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단재 신채호선생 유히비가 있다. 생가 바로 앞에는 동상이 서 있고, 행랑채가 붙어있는 초가로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생가에는 고령신씨 출신 서예가 신덕선이 쓴 단재정사(丹齋精舍) 편액이 걸려있다.

## 2. 청주시

청주시에 산재한 신채호 유적지는 크게 낭성면과 가덕면으로 분류된다. 낭성면에는 신채호묘소와 사당, 단재기념관이 있는 귀래리와, 신병휴 가옥(신백우 생가) 터와 산동학당 터가 있는 관정리가 주요 유적

지이고, 가덕면에는 문동학교 터(신형호 가옥)가 남아있는 인차리와 신채호 선대들이 살아온 본향마을인 청용리가 대표적인 유적지다. 청용리에는 신채호가 한때 사사했던 석헌(石軒) 신승구(申昇求, 1850년~1932)의 가옥이 남아있기도 하다.

- 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 신채호 묘역(신채호 사당, 단재기념관)
- 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 신병휴 가옥(신백우 생가) 터, 산동학당 터
- 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 문동학교 초기 터(고령신씨 소안공파 종가 터), 문동학교 터(신형호 가옥)
- 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청용리 - 신승구 가옥, 신채호 직계 선영, 꽃뫼(화산)마을.

### 3. 천안시

충남 천안시에는 신채호가 18세에 찾아가 수학하는 신기선(申箕善, 1851~1909) 가옥 터가 남아있다. 신기선 가옥 터의 현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4길 35”이고, 이전 주소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203번지”다. 와곡(와곡리)과 오동촌(오동리)이 합쳐져 오곡리가 되었는데 현재는 와곡이 오곡1리, 오동촌이 오곡2리다. 신기선 가옥 터는 오동촌 마을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현재 오곡리 201번지는 주택, 202번지는 논, 그리고 203번지는 밭이다. 이 가운데 신기선의 가옥 터인 203번지 밭의 일부에는 저택의 뒷담으로 쌓아올린 돌담의 흔적이 남아있어 옛날 가옥의 풍모를 어렵잡게 한다.

신채호는 이곳에서 신기선의 장서를 읽으며 학문을 사사하다가 이듬해 그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된다. 그렇게 자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준 고마운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채호는 불과 10년 뒤인 1908년,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일본의 삼대충노(三大忠奴)」에서 송병준(宋秉峻, 1858~1925), 조중응(趙重應, 1860~1919)과 더불어 신기선을 일제의 주구로 신랄하게 비판한다. 주된 혐의는 대동

학회(大同學會)였다. 대동학회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이완용에게 제공한 2만원을 자금으로 조선의 유림을 친일세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907년 결성되는데, 초대 회장이 신기선이요 부회장이 홍승목이었다.

#### 4. 서울특별시

##### 1) 성균관

신채호가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은 1898년 가을이었다. 본래 성균관은 사마시 합격자인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졌으며, 문음(門蔭)의 자제(子弟)들 또한 승보시(升補試)를 통해 입학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상재(上齋)와 하재(下齋)로 구분했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통해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성균관 입학생들은 주로 고위관료들의 추천과 문음 자제들로 이루어졌다. 1898년 신채호가 입학한 성균관은 과거제 폐지 이후 1895년 3년제로 신설되어 근대 교육과목을 가르쳤던 경학과(經學科)였다. 신채호는 이 경학과 3년 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 2) 독립회관 터

독립회관은 중국의 종속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주요목적으로 서재필 등의 주도 아래 1896년에 창립한 독립협회에서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慕華館)을 뜯어고쳐 협회 사무실 및 집회장소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독립협회는 더불어 모화관의 정문이었던 영은문(迎恩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신채호는 성균관에 입학하던 해인 1898년 11월, 소장과 회원으로 독립협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이해 11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우 치열한 철야시위로 진행되었던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처음으로 투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 3) 『황성신문』 사옥 터

신채호가 드나들던 『황성신문』 사옥은 현재 서린동 영풍문고 빌딩의 종로사거리 쪽 입구 북쪽 모서리 일원에 있었던 『황성신문』의 네 번째 사옥이다. 1904년 9월 이후부터 『황성신문』은 이곳을 사옥으로 사용했다. 현재 이곳을 알리는 『황성신문』사옥 터 표지석은 종각 지하 철역 5번 출구에 있다.

### 4) 『대한매일신보』 사옥 터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월, 원구단 신작로 입구 북편의 석정동(石井洞)으로 사옥을 옮기는데 지금의 서울시청 옆 프레지던트 호텔 자리다. 신채호는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신문에 논설을 기고하기 시작한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5월 30일부터 국한문판, 영문판, 한글판 세 종류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부수가 1만부에 이르렀다. 현재는 창간 사옥 터 표지석만 조계사 뒤편 목은영당 옆에 세워져 있다.

### 5) 삼청동 신채호 가옥 터

종로구 삼청동 2-1번지 일원이다. 현재 이 부근은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인데 인근 사찰이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채호가 살던 초가집은 현재 주차장 오른쪽 일부와 좁은 골목하천으로 정비된 개울과의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채호는 이곳에서 첫 번째 부인 풍양 조씨와 첫째아들 관일, 그리고 조카 신향란과 함께 살았다. 삼청동 가옥은 신채호가 일생 동안 자신의 명의로 소유했던 거의 유일한 자택이었다.

### 6) 기타

그밖에 신채호가 직접 관련된 곳이 아닌 간접유적지로서 현재 탐골공원 안에 있던 박자혜 산파가 있으며, 조카 신향란이 홍어길과 7남매

를 낳아 기르며 결혼생활을 했던 ‘홍난파 가옥’ 등이 있다.

### 5. 북한지역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에 있던 오산학교는 1910년 신채호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열흘 정도 머물렀다 간 곳이다. 이 무렵 오산학교에는 여준(呂準, 1862~1932)이나 이광수(李光洙, 1892~1950) 같은 사람들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행적을 기록한 이광수의 글<sup>4)</sup>이 남아있다.

또한 대동강 하구 무역항인 진남포는 1917년 조카 신항란이 홍어길(洪魚吉, 1899~1988)과 혼인을 한 곳인데, 이때 신채호는 밀입국하여 조카를 만나고 서울을 들렀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간다. 그동안 이때 신채호가 조카의 결혼을 반대하여 단지했다는 일화가 마치 정설처럼 회자되었는데,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들의 후손과 연락이 닿아 점차 이때 일어났던 사건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 III. 신채호의 해외 유적지 개요

신채호의 해외 유적지는 러시아, 중국, 일본, 타이완 등 4개국에 걸쳐 두루 산재해 있다. 그러나 신채호의 해외 망명 생활 25년 9개월 가운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는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에 국한되어 있다. 더불어 중국 체류 기간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상하이 2년 미만과 동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환런(桓仁)의 1년 미만을 빼고 나면 나머지의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보냈다. 물론 체포 이후 만 8년의 세월을 다롄에서 보냈지만 이때는 거주라기보다는 그 기간 전체가 영어의 날들이었다. 따라서 신채호 해외

4) 이광수, 1936, 「탈출 도중의 단재 인상」, 『조광』.

유적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무대는 역시 베이징과 다롄이다.

## 1. 중국

### 1) 베이징

신채호는 1914년 말에서 1915년 초 베이징 생활을 시작하여, 1928년 4월 25일 타이완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베이징을 떠날 때까지 햇수로 14년을 거주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하여 잠시 상하이에 머무는 시간을 제외한다 해도 거의 13년에 이르는 매우 긴 시간이었다. 따라서 베이징에는 신채호와 관련한 유적지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베이징의 신채호 거주지는 차례대로 진스광제(錦什坊街), 차오편우 후통(炒豆胡同), 따허이후후통(大黑虎胡同), 화평후통(華豐胡同) 등인데 구체적인 건물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근의 골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밖에도 스명안(石燈庵), 관인쓰(觀音寺), 푸튀안(普陀庵) 같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임시로 거쳐했던 많은 곳이 있지만 현재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은 비교적 자주 거쳐로 삼았던 스명안과 1924년 1년여 승려생활을 했던 관인쓰가 고작이다.

거주지 이외의 활동 유적지로는 「현량사 불상을 보고」라는 시를 남긴 왕푸징의 선량쓰(賢良寺) 터, 베이징 인근에 있는 까오리잉(高麗營), 그리고 베이징 남쪽과 북쪽에 각각 위치한 상광산(上方山)과 홍뤄산(紅螺山) 등이 있다.

### 2) 상하이

신채호가 처음 상하이에 머무는 것은 1913년 봄 무렵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로 와 신규식의 집에 머물며 박달학원과 동제사 등에 참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 머물던 신규식 거주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상하이에 머무는 것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여하면서부터 1년 동안이다. 이때는 베이징과 상

하이를 오가면서 몇 군데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인된 거주지는 박은식, 김창숙과 함께 머물던 프랑스 조계지 백이로 455번지다. 1919년 8월 임시정부와 결별한 이후 『독립신문』에 맞서 발행을 시작하는 『신대한』의 발행지 역시 위의 신채호 거주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물론 현재는 두 공간 모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 도심 한 가운데 있어 그 지면만 확인되고 있다.

### 3) 다렌

1928년 5월 8일 타이완 지룽에서 체포된 신채호는 곧바로 다렌으로 이송된다. 다렌에는 이때 취조를 받았던 다렌경찰서와 재판을 받았던 관동청지방법원이 있던 건물이 현재 중산광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이때 투옥되어 있던 다렌형무지소 터를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하여 현장을 답사했다. 다렌형무지소는 신채호가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매우 중요한 유적지인데 현재는 감옥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그 터만 겨우 확인할 수 있다.

다렌형무지소에 수감되어 관동청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이감된 곳이 뤼순형무소다. 만 8년의 투옥 생활 중 2년은 다렌형무지소, 그리고 순국 때까지 나머지 6년을 뤼순형무소에서 보냈다. 또한 1936년 2월 21일 이곳에서 순국한 다음 시신을 화장한 뤼순형무소 화장장은 뤼순형무소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 4) 단둥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단둥은 1910년 6월 초, 정주 오산학교를 떠나 중국으로 처음 망명지의 첫발을 내딛은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끊어진 압록강단교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1943년 건립한 다리가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란 이름으로 여전히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고 있다. 흔히 신채호가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지만 망명 당시인 1910년에는 압록강단교가 아직 개통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기차로 신의주까지 와

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넌 것이다. 그리고 단둥에서 다시 이룡양행의 배를 타고 웨이하이를 거쳐 칭다오로 갔다.

### 5) 환련

1914년 봄, 상하이 신규식 집에 머물고 있던 신채호는 윤세용, 윤세복 형제의 초청을 받고 환련으로 가 동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다. 이때 『조선사』를 집필하여 교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동창학교에 재직하면서 신채호는 틈틈이 만주 일원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다. 그러나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으로 1914년 말 결국 동창학교가 개교 3년 만에 폐교되자 신채호는 베이징으로 옮겨 간다.

### 6) 고구려유적 - 지안 및 백두산

1914년 동창학교에 재직하던 신채호는 주로 대동청년당 소속의 제자들과 함께 만주 일대의 고구려유적을 답사했다. 동창학교 교사들이나 가까운 동지들이 함께 하기도 했다. 이때 광개토태왕릉과 광개토태왕릉비 등을 비롯하여 만주 일대를 답사 조사했던 신채호는 훗날 조선상고사를 쓰면서 “집안현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 2. 러시아

신채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은 1910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짐작된다. 그해 8월 칭다오에서 열렸던 ‘청도회의’에 참석했던 동지들과 함께 배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와 어떤 배편을 이용했는가는 기록마다 달라 분명치 않다.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스카야 거리 89번지는 개척리에 위치했던 『대양보』의 발행지다. 연해주에 한인단체 조직에 적극 참여했던 신채호는 1911년 6월부터 발행을 시작하는 이 신문의 주필을 맡았다. 이후 신한촌으로 이전한 『대양보』의 발행지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

카야 거리 12번지다. 1911년 9월 밀정 엄인섭의 활자도난사건으로 『대양보』가 폐간된 뒤에는 다시 권업회에서 발행하는 『권업신문』의 주필을 맡는다. 현재 개척리의 『대양보』 발행지를 비롯하여 같은 공간인 신한촌 『대양보』 발행지와 『권업신문』 발행지, 그리고 인근 권업회 사무실까지 모두 지번 확인이 가능하다.

### 3. 일본

신채호는 1928년 4월 25일 베이징을 떠나 텐진(天津)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모지항(門司港)으로 간다. 당시 일본의 고베에서 모지를 거쳐 타이완의 지룽(基隆)으로 연결되는 고순마루(桓春丸)를 타기 위해서였다. 신채호가 지룽에서 체포되는 것이 5월 8일이므로 모지에서 고순마루에 승선한 날짜는 대략 5월 5일쯤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5월 초에 모지 항구에 도착한 신채호는 이곳에서 사나흘쯤 머물며 배편을 기다렸을 것으로 보인다.

### 4. 타이완

신채호는 1928년 5월 8일 타이완 지룽우편국에서 일경에게 체포된다. 현재의 지룽 항구는 당시의 항만이나 도로의 형태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다만 신채호와 관련한 유적지 건물은 모두 옛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것들이다. 신채호가 체포된 지룽우편국 건물은 1970년 헐리고 새로 지었다. 또한 체포 이후 첫 취조를 받은 지룽경찰서 역시 건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은 지룽시 소방서가 자리하고 있다.

## IV. 신채호 유적지 조사의 성과와 과제

### 1. 신채호 유적지 조사의 성과

신채호의 국내외 유적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많은 답사가 이어졌

지만 이번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본격적인 조사는 처음이었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유적지를 새로 발굴하거나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밝히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국내 조사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청용리에 산재해 있는 신채호 직계 선영을 조사하면서 이곳에 살던 신채호 일가가 대전으로 이주하는 시기 및 배경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는 신채호가 대전에서 태어나는 이유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성균관을 마친 신채호가 귀향하여 처음 교육 계몽운동을 펼쳤던 문동학교의 초기 교사로 사용되었던 고령신씨 소안공파 종갓집이 있던 자리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그 건물의 위치와 현재 모습을 확인하였다.

천안시에 있는 신기선 가옥 터와 서울 삼청동 신채호 가옥 터를 새로 발굴하여 처음으로 지면에 소개한 것도 큰 성과였다. 특히 신채호 가옥은 그의 일평생을 통틀어 유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했던 가옥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해외 유적지 조사에서는 더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중국의 일부를 제외한 러시아, 일본, 타이완 등지의 신채호 유적지는 물론 이번이 처음 답사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타이완 지룽에서는 그 동안 배안에서 내리려다 지룽 수상경찰서원에게 체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지룽우편국에서 위체 환전을 신청하고 기다리다 체포되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sup>5)</sup> 지룽우편국, 지룽경찰서 자리도 모두 새로 특정하였다.<sup>6)</sup>

신채호가 미결수로 2년의 옥방 생활을 보냈던 다렌형무지소의 발굴은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그 동안 뤼순형무소의 존재에 가려져 단체나 학계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새로운 발굴이었다. 지난해를, ‘2016년 단재해외답사단’이 처음으로 다렌형무지소를

---

5) 박걸순, 2013, 「단재 신채호의 중국 청도 상해 및 대만지역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 『단재 신채호의 해외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 I』,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55~56쪽.

6) 허원, 2014, 「단재 신채호의 체포 심문과 기류경찰서」, 『단재 신채호의 해외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 II』,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43쪽.

답사코스에 추가하여 마침내 탐방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다.

## 2. 신채호 유적지 조사의 과제

이번 조사는 신채호라는 한 인물의 발길이 닿았던 유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이를 토대로 신채호의 행적을 좇을 수 있는 통합 자료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사업으로 종료될 수 없는 후속연구 내지는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국내 유적지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신채호 일가가 청주 청룡리에서 대전 어남동으로, 또는 대전에서 청주 귀래리로 이주하는 시기에 대한 정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주에서 대전으로의 이주시기를 1873년 5월 직후와 1875년 6월 직후 두 가지로 가정하였으며, 대전에서 청주 귀래리로의 이주시기를 1882년부터 1885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 부분은 신채호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의 자료 내지는 가장 많은 탐방객들이 드나드는 대전의 생가와 청주의 묘소에 있는 안내 책자를 비롯한 홍보 자료의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정확한 연구가 시급하다.

해외 유적지에서는 1910년에 있었던 청도회의 장소, 초기 상하이 시절의 거처였던 신규식 거주지, 신채호의 발길이 빈번했던 텐진의 유적지 등을 비롯하여 새로 찾아내고 발굴해야 할 유적지가 아직도 무수히 많다. 더불어 블라디보스토크 시절 비교적 꼼꼼히 답사했다고 하는 발해유적지 역시 신채호의 발길을 따라 더듬어 보는 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유적지 조사와 맞물려 전기적 국면으로는 다론허무지소에 구금되어 2년 동안 재판권을 받는 내용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동방연맹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과 대만인이 제외되고 한국인 3인만으로 심리, 구형, 선고가 진행되어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만 점

점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과 혐의사실에 의해 신채호가 10년형을 선고받는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V. 신채호 유적지 조사의 활용 방안

이번 연구는 위원회에서 해마다 추진해 왔던 단재 해외 유적 답사의 내용을 보강하고 신채호의 유적지를 정리하여 그 답사영역을 넓혀 가려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내외 유적지 답사를 목적으로 답사 안내 자료서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답사자료서 한 권을 들고 거의 모든 유적지를 답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지만, 이후 보다 구체적인 단체 답사코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해외 답사와 달리 조직적인 차원의 국내 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리된 유적지 답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답사 코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전의 신채호 생가와 청주의 묘소를 연결하는 1일 답사코스와 서울특별시 산재한 신채호 유적지를 둘러보는 1일 답사 코스가 가장 무난하다.

실제로 위원회에서는 국내 유적지 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를 거듭했지만 아직 체계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재백일장이나 단재퀴즈대회에 입선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적 답사권이 주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입선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신채호 유적지 답사자의 자격이 충분하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적지 일일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 학생들의 단재 배우기를 조장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답사를 안내할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서둘러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단체 해외 유적지 답사는 크게 동북 3성의 만주지역과 베이징, 상하이 세 군데로 나누어진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다양한 답사코스를 개발하여 별도의 안내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적어도 해외 답사만큼은 위원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단체 답사 코스를 향후 연구과제에 추가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답사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는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입선한 학생들과 지원을 희망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폭넓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두루 모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비를 배정하여 전국 단위의 학생을 모집하여 신채호 해외유적 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놓고 보훈처와 위원회 사무국에서 매우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바, 향후 단체유적지에 대한 답사 행렬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1차 답사 자료의 집대성은 다양한 2차 3차의 창작물을 유도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미 2차 저작물인 『단체 기행』이 발간되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다시 꼭 답사를 가지 않아도 간접 체험이 가능한 단체 기행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신채호 루트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자료로써 가치를 지닌다.

## VI. 신채호 유적지 답사활용 사례

위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신채호 해외답사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현재까지 완성된 해외 답사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국내에서는 생가가 있는 대전과 묘소가 있는 청주, 그리고 해외에서는 가장 오래 거주했던 베이징과 순국한 장소인 다롄을 비롯한 만주 일원이 신채호 국내외 유적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 아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답사루트이다.

## 1. 단재 해외유적답사 전체일정(6박7일)

- 가. 1일차 : 인천 - 다롄 - 단둥
- 나. 2일차 : 지안 - 통화
- 다. 3일차 : 백두산 - 이도백하
- 라. 4일차 : 룡징 - 투먼 - 엔지
- 마. 5일차 : 창춘 - 베이징(야간열차)
- 바. 6일차 : 베이징 1일차
- 사. 7일차 : 베이징 2일차 - 인천

## 2. 단재 해외유적 답사 개요

현재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채호 해외유적 답사는 중국 동북 지역 랴오닝성과 지린성, 그리고 베이징 지역 등 일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신채호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가운데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만으로도 워낙 이동거리가 멀고 광활한 면적이어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체력적인 부담과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강행군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좇아간다는 의미에서 참가자들이 매우 의욕적인 답사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우선 랴오닝성과 지린성 코스의 일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랴오둥반도의 꼭짓점인 다롄에서 출발하여 서한만 북쪽의 압록강 하구의 단둥까지가 1일, 압록강을 거슬러 지안과 통화까지가 2일, 백두산 3일, 룡징과 엔지를 거쳐 투먼의 두만강 하구까지 모두 4일의 일정이다. 다롄에서 단둥을 지나 압록강을 거슬러 백두산까지, 다시 백두산에서 두만강 하구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따라가는 코스다. 5일 째는 지린성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시간인데 참가 학생들에게 중국의 장거리 기차여행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전에만 답사를 하고 오후부터 이동하여 베이징 행 야간열차에 탑승한

다. 그리고 나머지 6일과 7일 이들은 베이징의 신채호 유적지를 답사한다.

### 3. 단재 해외유적답사 세부일정

#### 1) 1일차

다렌의 신채호 유적지는 모두 네 군데다. 재판을 받았던 중산광장의 관동청지방법원,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던 다렌형무소, 기결수로 나머지 수감 생활을 하다 순국한 뤼순형무소, 그리고 뤼순형무소 화장장이다. 이밖에 신채호 관련 유적지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가능한 꼭 답사를 해야 할 곳으로 안중근이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구지가 있는데 이곳은 뤼순형무소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충분히 답사가 가능하다.

보통 다렌을 답사한 뒤 단둥까지의 이동거리가 워낙 멀어 위의 모든 곳을 답사하려면 단둥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지곤 했는데, 2015년 12월 다렌-단둥 간 고속열차가 개통되어 앞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다렌의 답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열차는 다렌에서 단둥까지 1시간 45분 걸린다.

#### 2) 2일차

둘째 날은 단둥과 지안의 고구려유적을 둘러보는 코스다. 단둥에서 는 북한 지역인 신의주와 연결되는 압록강 철교를 둘러보고 압록강 유람선에 승선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단둥의 모습과 위화도 등 하중도의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폐쇄적인 형태의 북한 신의주 지역을 배 위에서 관람하게 된다.

그리고 지안으로 이동하는데, 압록강 철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룡양행 자리와 단둥 근교에 있는 박작성(호산장성)을 차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도로 교통이 여의치 않던 이전에는 압록강변을 거슬러 지안으로 가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고속도로가 비교적 잘 닦여서 판띠엔(寬甸)을 거쳐 지안에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

었다. 지안에서는 압록강 강변공원에서 가까운 북한 지역을 둘러볼 수 있고 시내에 있는 지안박물관을 시작으로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다. 시내에서는 고구려유지공원과 국내성 성벽을 보고 교외로 나가 보통 광개토태왕릉과 능비, 장수왕릉, 5회분 5호묘, 환도산성(위나암성)과 고구려고분군 순서로 답사한다.

### 3) 3일차

3일째는 백두산을 답사한다. 이동거리가 만만찮기 때문에 이 날은 새벽 일찍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백두산은 현재 동서남북 모두 네 군데의 답사 코스가 있는데 동쪽 코스는 북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중국에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코스는 비룡폭포(중국 명칭은 장백폭포)가 있는 북쪽 코스다. 얼마 전까지는 비룡폭포를 지나 계단을 통해 달문으로 천지에 오르는 길이 흔히 이용되었으나 요즘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소천지 부근에서 천문봉까지 운행하는 승합차를 이용한다.

다만, 중국 정부가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에 포함시키면서 백두산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 엄청난 장사진을 이룬다. 현재 단재해외유적답사가 진행되는 8월 10일경은 역시 중국의 휴가철과 방학이 겹쳐서 대단히 혼잡하다. 2016년 답사 일에도 25,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몰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데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한 혼잡을 치렀다. 답사를 떠나는 한국의 학생들 상황 때문에 날짜 조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 4) 4일차

넷째 날은 신채호의 직접적인 유적지는 아니지만 간도 일원의 중요한 독립운동 유적지인 룡징을 중심으로 답사한다.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창립했던 보재 이상설과 관련된 유적, 그리고 항일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한다. 더불어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 발해 중경

현덕부 유적, 간도 15만원 탈취기념비, 3·13반일의사릉, 일송정, 해란강 등의 유적지와 경관들을 선택적으로 답사하거나 지나치며 차창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투먼의 두만강 하구를 탐방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현장인 간도 일원을 둘러보는 것이 신체호 해외유적지 답사단의 청소년들에게도 특별한 보탬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답사코스에 추가된 곳들이다.

### 5) 5일차

5일째는 투먼의 두만강 하구를 찾아 다렌에서 압록강, 다시 백두산에서 두만강 하구로 이어지는 한중 국경지역의 답사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베이징을 향해 이동을 시작한다. 엔지나 지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과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항공편을 이용하면 하루 일정이 절약되기 때문에 여행경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지만, 중국 대륙의 장거리 열차여행을 체험하는 의미와 청소년 참가자들이 야간열차 여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차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주로 창춘이나 선양에서 저녁에 탑승하여 아침에 베이징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를 이용한다.

### 6) 6일차

베이징은 신체호가 망명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따라서 베이징에는 신체호 유적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모든 곳을 둘러보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상징하는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한번쯤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꼭 가야만하는 중요한 유적지를 선별하는데, 자금성 서쪽의 진스광제, 자금성 북쪽의 구러우와 중러우 부근의 후통들, 그리고 왕푸징의 샌량쓰 자리를 주로 답사한다.

그리고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 베이징대학과 만리장성 도중의 까오

리잉 정도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6일차 저녁에는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답사 참가자들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시간이다.

### 7) 7일차

마지막 날인 7일째는 아침 일찍 만리장성을 향하여 출발한다. 중국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베이징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만리장성이기 때문이다. 만리장성은 거용관이나 팔달령 코스를 그때마다 도로사정과 현지 상황에 맞추어 결정한다.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귀국 항공편 시간에 맞추어 만약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베이징대학이나 기타 베이징 시내 답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

## VII.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국내외 신채호 유적지를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조사보고서 및 답사안내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재해외유적답사를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 근대사에는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수없이 많지만 이렇듯 그의 생애가 인연했던 유적지를 낱알이 발굴 조사하여 대중안내서를 발간한다거나 그에 따른 정기적인 유적답사를 해마다 진행하는 인물은 아마도 단재 신채호가 처음일 것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온 이 사업이 점차 일정한 골격을 갖추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보훈처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국적인 학생 답사단이 가동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단재루트’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의 파격적인 선풍(旋風)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반가운 일이다.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만주별관을 달리면서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그 어느 가르침보다도, 이 ‘단재로드’

야말로 우리 민족이 궁극의 귀의처로 삼아야 할 살아있는 현장이요 교실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이제나저제나 ‘아와 비아’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바람 부는 별판 한가운데서, 선생께서 순국하신지 어언 80년의 춘풍추우가 흐른 까닭을 다시금 되새기며 글을 맺는다.

[논문접수 : 2016.10.15, 심사시작 : 2016.10.17, 심사완료 : 2016.10.25.]

주제어 : 신채호, 단재유적지, 단재해외유적답사, 단재문화예술제전  
추진위원회

**【참고문헌】**

- 김하돈, 2015, 『단재 기행』,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2013, 『단재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 기념  
장소 네트워킹 사업(1차) 결과보고서』.
-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2014, 『단재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 기념  
장소 네트워킹 사업(2차) 결과보고서』.
- 박결순, 2013, 「단재 신채호의 중국 청도 상해 및 대만지역 독립운동  
과 유적지 현황」, 『단재 신채호의 해외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  
황 I』,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 이광수, 1936, 「탈출 도중의 단재 인상」, 『조광』.
- 허원, 2014, 「단재 신채호의 체포 심문과 기류경찰서」, 『단재 신채호의  
해외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Ⅱ』,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